

전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민선 8기 해뜨나

단일 최대 2조 투자 등 기대감 불구
선도주택 1,600건 청약 물거품 우려
미래형 자동차 유치 등 과제 첩첩
증과세 개선...도로 등 정부 지원 절실

전남도의 오랜 현안인 솔라시도(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2기 김영록 체제’에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당장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업도시 사상 최대 규모인 2조원대 투자협약이 이뤄지며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전남도의 해법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면 일원 33.8㎢(1,024만평)에 총사업비 8조5,000억원(도시조성비 2조3,258억원)을 들여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솔라시도는 2010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지구 축소 등을 거쳐 현재 3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구별로 구성지구(632만평)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생태자연과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블루시티를, 삼호지구(262만평)는 서남해안레저가 골프 중심의 관광레저도시를, 삼포지구(130만평)는 KAVO·KPO목포도시가스·전남개발공사가 자동차 관련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3개 지구 계획인구는 5만7,000명(2만3,000세대)이다.

이 중 구성지구는 최근 대규모 투자협약이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구성지구에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최첨단 스마트팜 등 융·복합 시설 구축 등을 골자로 한 2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8기 1호 투자협약이며 기업도시 단일 사업비로는 최대 규모로, 대우건설의 기술력 등이 결합된 대형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구성지구에는 2019년 12월 태양광 발전단지(48만평·98㎢)가 준공됐고, 지난해 8월에는 솔라시도 골프장이 개장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MOU도 체결했다.

63홀 골프장이 조성 중인 삼호지구도 2019년 10월 1단계로 사우스링스 영암 골프장(45홀)이 개장했고, 나머지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삼호지구에는 프로골퍼 전지훈연 등 연수 전문교육기관인 골프러닝센터와 골프박물관, KLPGA 명예의 전당 등이 건립된다. 삼포지구는 지난 2010년 개장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튜닝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밸리 조성사업이 핵심으로 진행 중이다.

솔라시도는 특히 구성지구에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오랜 부진을 딛고 각 지구마다 특화된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상당하다.

구성지구는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솔라시도 선도 주택단지(600세대)가 부동산 규제에 발목 잡힌 상황이다. 총 4,000~6,000세대 규모의 구성지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시범사업 격이지만, 정부의 1가구 2주택 증과세 정책에 이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도시지역(용도 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곳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도시 지구인 영암·해남은 농업용 간척지이지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포함돼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구성지구 시범주택단지에 1,600건의 사전청약의향서가 접수됐지만, 향후 필수요자는 급감할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오는 21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증부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값 급등 등 사업 차질 요소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삼포지구 역시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 튜닝플랫폼 개발사업 ▲개조전자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전남도는 F1 서킷 내 프리미엄자동차 연구센터에 입주한 자동차 부품 관련 10개 기업연구소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2,605억원을 투입해 생산기반 구축을 끝내고 기업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2면으로 이어짐
/오선우 기자



광주 진로진학 박람회

지난 16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3학년 대입 광주 진로진학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각 대학의 홍보부스에서 학과 안내, 진로 상담 등을 받고 있다.

/김성훈 기자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열전 돌입

24일까지 4천여명 기량 겨뤄

마스터즈대회는 23~24일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및 ‘제1회 광주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가 지난 16일 오후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9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와 대한수영연맹이 공동 주최한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유산사업으로 창설된 이번 대회는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로 수영 전문·생활체육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수권대회 1,400여명, 마스터즈대회 750여명 등 총 4,000여명이 참가하며, 선수권대회는 오는 24일까지 경영·다이빙·수구·아티스틱스 위밍 등 4개 종목, 마스터즈대회는 23~24일 이틀간 경영과 다이빙 2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의 기운을 모아 열리는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축하한다”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뜨겁게 달굴 선수 여러분의 거침없는 도전과 열정이 무척 기대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대 150mm 비

광주·전남지역에 19일 밤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1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전남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18일 새벽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돼 19일 새벽까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특히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mm~50mm 이상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돼 휴가철 해안가와 계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가 필요하다.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남 남해안에는 18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도 함께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민 기자

INSIDE NEWS

시교육청, 무상급식 겨울방학 재추진 ▶6면
전매초대석/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기회/윤병태 나주시장 ▶8면
▶11면

전남매일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단·시약 및 Molecular 의료기기 등 기자재 전문

생화학
검사

면역혈청학적
검사

혈액학
검사

노화학
검사

분자 진단
검사

www.samiltnc.com



주|삼일티엔씨

Samil Treatment & Care Co., Ltd
[61901]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6번길 16

대표이사 신영태